<h1>나 혼자만 레벨업-93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v14fc7dbe65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93화</p>  
<p>이민성의 얼굴이 굳어졌다.</p>  
<p>기자들을 가로질러 간 남자와, 그 남자를 데려간 고건희 협회장.</p>  
<p>"오늘 고건희 협회장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어?"</p>  
<p>"오전 일정이 싹 비었다는데요?"</p>  
<p>"방금 그 사람 때문에 협회장이 오전을 전부 비웠다는 거야?"</p>  
<p>웅성웅성.</p>  
<p>두 사람의 등장으로 어수선해진 현장은 더 이상 인터뷰를 진행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.</p>  
<p>오늘을 위해 얼마나 힘을 쏟았던가?</p>  
<p>이민성이 벌레 씹은 표정으로 매니저를 쏘아보았다.</p>  
<p>'매니저란 새끼가 저런 거 하나 똑바로 처리를 못해서.'</p>  
<p>매니저는 차마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.</p>  
<p>이민성이 A급 각성자가 된 지금, 전과는 달리 이제 완력으로도 그를 당해 낼 수가 없었다.</p>  
<p>눈치껏 굽혀야만 했다.</p>  
<p>'...'</p>  
<p>한참 매니저를 노려보던 이민성의 고개가 자연스레 옆쪽으로 돌아갔다.</p>  
<p>"큐!"</p>  
<p>아뿔싸!</p>  
<p>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방송국 카메라까지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.</p>  
<p>저건 생방송이다.</p>  
<p>이런 산만한 광경이 전파를 타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된다면, A급 헌터가 되어 브랜드 가치를 한껏 끌어올리려 했던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.</p>  
<p>하지만 인터뷰를 재개해 분위기를 진정시키기에는 고건희 협회장의 등장 여파가 너무 컸다.</p>  
<p>하필 그런 거물이 이런 중요한 순간에 등장해 가지고...</p>  
<p>'어떻게 분위기를 반전시킬 방법이 없을까?'</p>  
<p>약삭빠른 그의 두뇌가 빠르게 회전을 시작했다.</p>  
<p>'그래, 역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는 큰 거 한 방만 한 게 없지.'</p>  
<p>기자들은 등급 심사를 앞둔 자신의 심경 따위가 궁금해서 온 게 아니다.</p>  
<p>대스타 이민성이 어떤 등급의 헌터가 될지, 그리고 헌터 자격증을 발급받고 난 다음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.</p>  
<p>그걸 알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.</p>  
<p>원하던 답을 주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리라.</p>  
<p>'일정을 좀 앞당겨서 바로 심사를 시작하자.'</p>  
<p>이민성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.</p>  
<p>과연 주위의 평가처럼 이런 쪽으로의 잔머리는 대단히 빨랐다.</p>  
<p>"저기, 잠시만요. 협회 관계자분들과 오늘 일정에 대해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."</p>  
<p>그렇게 대충 기자들에게 둘러댄 이민성이 협회 건물로 향했다.</p>  
<p>바뀐 일정을 '논의'가 아니라 '통보'하기 위해서였다.</p>  
<p>'우리 아버지가 지원하는 돈이 얼만데. 협회고 뭐고 당연히 알아서 기어야지.'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'어?'</p>  
<p>유리문을 밀고 막 들어가기 직전, 안에서 우르르 몰려나온 감시과 헌터들에 의해 뒤로 밀려났다.</p>  
<p>헌터들은 일렬로 서더니 건물 입구를 봉쇄했다.</p>  
<p>'뭐야, 이건 또?'</p>  
<p>이민성의 이맛살이 구겨졌다.</p>  
<p>이민성은 남자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확인했다.</p>  
<p>'헌터협회 감시과 과장 우진철?'</p>  
<p>이민성이 우진철이란 사내에게 물었다.</p>  
<p>"뭡니까? 왜 입구를 막는 거죠?"</p>  
<p>우진철은 선글라스를 낀 채로 이민성을 내려다보았다.</p>  
<p>"현재 다른 각성자분의 등급 심사 재측정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. 심사가 끝나는 11시까지 아무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."</p>  
<p>"뭐라고요?"</p>  
<p>다른 각성자라면 방금 협회장을 따라 들어간 그 남자를 말하는 건가?</p>  
<p>이민성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.</p>  
<p>지금은 오전 10시 30분.</p>  
<p>11시라면 자신의 등급 심사가 예약된 시간이었다.</p>  
<p>그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간다?</p>  
<p>등급 심사를 앞당겨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던 계산이 수포로 돌아가기 직전이었다.</p>  
<p>처음에는 좋게 말했다.</p>  
<p>"그러지 말고 좀 들여보내 주시죠. 관계자분들과 논의할 게 있다니까요."</p>  
<p>"죄송합니다."</p>  
<p>우진철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입을 꾹 다물었다.</p>  
<p>답답해진 이민성이 참지 못하고 슬슬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.</p>  
<p>"이봐요,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? 나 이민성이라고, 이민성."</p>  
<p>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민성의 말투가 격해졌지만, 우진철은 조금도 비켜 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"하-"</p>  
<p>이민성이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내뱉었다.</p>  
<p>"어이. 헌터협회의 가장 큰 스폰서가 유진건설이란 건 알지?"</p>  
<p>이민성의 입꼬리가 올라갔다.</p>  
<p>"유진건설 이원규 부사장님이 내 아버지야. 그리고 저 사람들 보여?"</p>  
<p>이민성은 계단 아래 쫙 깔린 기자들을 가리켰다.</p>  
<p>"저렇게 많은 기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유진건설 부사장의 아들을 이렇게 취급해도 돼? 당신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?"</p>  
<p>우진철의 대답은 간단했다.</p>  
<p>"감당할 수 있습니다."</p>  
<p>"뭐?"</p>  
<p>이민성은 기가 막혀 왔다.</p>  
<p>도대체 그 남자가 뭐라고 협회장이 마중을 나오고, 등급 심사를 위해서 건물 전체를 통제한단 말인가?</p>  
<p>거기다 부장급도 아닌, 겨우 과장 나부랭이가 이렇게 기고만장이라니.</p>  
<p>이민성이 양 옆구리에 손을 얹고서 따지듯 물었다.</p>  
<p>"그 다른 각성자란 게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협회에서 싸고도는 겁니까?"</p>  
<p>그제야 우진철이 선글라스를 벗었다.</p>  
<p>"그걸 제가 말씀드리면."</p>  
<p>흠칫.</p>  
<p>맹금류를 닮은 우진철의 부리부리한 눈매가 드러나자 이민성은 자신도 모르게 한걸음 물러섰다.</p>  
<p>우진철은 이민성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서 나직이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이민성 씨야말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?"</p>  
<p>\*\*\*</p>  
<p>건물 안은 한산했다.</p>  
<p>등급 심사 대기자 한 명 없이 텅 빈 홀에는 협회 직원들만 간간이 지나다닐 뿐이었다.</p>  
<p>아마도 바깥에 기자들이 잔뜩 몰려와 있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은 듯했다.</p>  
<p>"이쪽으로 오시죠."</p>  
<p>"예."</p>  
<p>고건희의 안내를 따라 정밀 측정실로 향하려던 진우의 시선에 낯익은 얼굴 두 사람이 들어왔다.</p>  
<p>'어라?'</p>  
<p>맞은편 휴게실 의자에 백윤호, 최종인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.</p>  
<p>3일 전 재심사를 받으러 왔을 때 깔끔하게 차려입은 길드 직원들이 몰려 있던 장소였다.</p>  
<p>눈이 마주친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 목례를 보내 왔다.</p>  
<p>진우도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서 홀을 지나쳤다.</p>  
<p>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고건희가 넌지시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"저 두 사람, 한 시간 전부터 와서 헌터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"</p>  
<p>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길드의 수장이 한 시간씩이나 먼저 와 재측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?</p>  
<p>진우의 눈빛을 읽었는지, 고건희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.</p>  
<p>"2년 만에 나타난 S급 헌터입니다. 게다가 최종인 쪽은 헌터님의 힘을 보았으니 더 애가 탈 테지요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거렸다.</p>  
<p>"어머."</p>  
<p>"협회장님."</p>  
<p>가는 도중 만난 협회 직원들이 고건희에게 깍듯이 인사하고는, 옆에 있는 진우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.</p>  
<p>'옆에 남자는 누군데 협회장님이 직접 안내를 해 주시는 거지?'</p>  
<p>'혹시 엄청 대단한 사람 아냐?'</p>  
<p>'저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협회장님을 아는 걸까?'</p>  
<p>장관급이 와도 마중 한번 나가는 일이 없었던 고건희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직원들에게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.</p>  
<p>고건희가 앞을 바라보며 물었다.</p>  
<p>"어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."</p>  
<p>말을 건네는 고건희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즐거워 보였다.</p>  
<p>실제로 고건희는 들떠 있었다.</p>  
<p>성진우가 흔해 빠진 헌터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자신의 예상이 들어맞았으니까.</p>  
<p>우진철에게 성진우의 활약상을 전해 들었을 때는 마치 본인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손에 땀을 쥐었다.</p>  
<p>'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.'</p>  
<p>그 뒤에 성진우가 보여 준 깔끔한 대처는 더욱더 마음에 들었다.</p>  
<p>보스를 포함해 던전을 거의 혼자 클리어했는데도 부산물 등에는 일절 욕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.</p>  
<p>그의 목적이 진짜 큰돈을 벌고 유명세를 얻는 대신 마수들과 싸워 사람들을 지키는 것에 있다면, 협회는 아낌없이 지원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.</p>  
<p>그건 협회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하는 일이었으니까.</p>  
<p>'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협회로 끌어들이고 싶구먼.'</p>  
<p>그러나 어쩌겠는가?</p>  
<p>일전에 그가 말했던 대로 협회에 들어오게 되면 마수들과 싸울 기회가 거의 없어진다.</p>  
<p>어제 전해 들은 성진우의 힘.</p>  
<p>던전 바깥에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능력이었다.</p>  
<p>이윽고 건물 안쪽에 있는 검사장에 도착했다.</p>  
<p>"재측정 전에 헌터님의 능력을 확인해서 계열을 분류할 겁니다."</p>  
<p>진우도 알고 있었다.</p>  
<p>헌터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에 따라 전투, 마법, 치유, 보조 등으로 구별 되어 필요한 곳에서 역량을 펼친다.</p>  
<p>검사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직원이 고건희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고는 진우를 인계받았다.</p>  
<p>"이리로 오세요."</p>  
<p>진우는 검사장의 중앙에 섰다.</p>  
<p>검사장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실내체육관 같은 구조였다.</p>  
<p>평범한 체육관과 차이점이 있다면, 벽면과 바닥에서 강한 마력이 느껴진다는 것이었다.</p>  
<p>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마법까지 동원해 튼튼하게 지은 모양이었다.</p>  
<p>검사관들이 물었다.</p>  
<p>"어떤 능력을 쓸 수 있으시죠?"</p>  
<p>아직 돌아가지 않은 고건희 협회장이 구석에서 흥미로운 눈빛으로 검사 과정을 지켜보았다.</p>  
<p>그가 진우를 마중 나온 이유.</p>  
<p>조금이라도 빨리, 두 눈으로 직접 진우의 능력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였다.</p>  
<p>"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."</p>  
<p>진우는 그림자 병사 하나를 불러냈다.</p>  
<p>"헉!"</p>  
<p>검사관들이 움찔 놀랐다.</p>  
<p>전신을 흑색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가 바닥에서부터 스르륵 올라오는데 어느 누가 태연할 수 있을까?</p>  
<p>일부러 일반 병사 중에서도 가장 레벨이 떨어지는 녀석을 골랐는데도 일반인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위압감이 흘러나왔다.</p>  
<p>"이건... 소환수인가요? 소환수를 부리시는 겁니까?"</p>  
<p>검사관의 목소리가 떨렸다.</p>  
<p>마음 같아서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친절히 설명이라도 해 주고 싶었지만.</p>  
<p>진우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.</p>  
<p>"...뭐, 비슷한 거 같네요."</p>  
<p>"그, 그렇다면 소환수는 몇 마리나 불러 낼 수 있습니까?"</p>  
<p>'거짓말은 소용없겠지.'</p>  
<p>어제 전부 소환한 그림자 병사들을 본 목격자가 어림잡아 스무 명을 넘어가는데.</p>  
<p>진우는 그림자 저장 스킬로 봉인해 둔 병사들의 숫자를 조금 줄여 말했다.</p>  
<p>"백 마리 정도..."</p>  
<p>100이라는 숫자에 검사관들의 눈이 휘둥그레 해졌다.</p>  
<p>"배, 백이요?"</p>  
<p>"네."</p>  
<p>반면 진우는 담담했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그림자 병사를 바라보는 고건희의 눈빛이 반짝였다.</p>  
<p>'저런 걸 백 마리나...'</p>  
<p>병사는 언뜻 보기에 B급 헌터 수준의 마력을 가지고 있었다.</p>  
<p>그런 걸 100마리나 불러낼 수 있다면 이미 그 개인으로도 어지간한 대형 길드 하나를 능가하는 힘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.</p>  
<p>실로 대단한 능력이었다.</p>  
<p>고건희의 뜨거운 시선이 피부로 느껴졌다.</p>  
<p>진우는 주변의 반응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'일반 병사 하나에 이정도 반응이면...'</p>  
<p>병사들 중 가장 레벨이 높은 '이그리트'나 어제 포획에 성공한 보스급 마수 '어금니'를 불러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.</p>  
<p>어쨌든 이걸로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증명된 셈이었다.</p>  
<p>"그럼... 성진우 헌터님은 마법계열이시군요."</p>  
<p>검사관은 기록지에 뭔가를 열심히 끄적거리더니, 만족한 듯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"이제 측정실로 가시면 됩니다."</p>  
<p>\*\*\*</p>  
<p>진우는 새로 발급된 헌터증을 받아 들었다.</p>  
<p>성진우, S급, 마법계열.</p>  
<p>사진란에 떡 하니 자기 얼굴이 박혀 있는데도 믿기지가 않았다.</p>  
<p>'좋아. 일단 여기까진 순조롭게 왔다.'</p>  
<p>진우는 헌터증을 지갑에 밀어 넣었다.</p>  
<p>복도 끝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백윤호, 최종인이 다가왔다.</p>  
<p>"성진우 씨,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?"</p>  
<p>"성진우 헌터님."</p>  
<p>"죄송합니다. 제가 할 일이 좀 밀려있어서요."</p>  
<p>진우는 그들을 무시하고 유리문으로 걸음을 옮겼다.</p>  
<p>"어, 어?"</p>  
<p>백윤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.</p>  
<p>"저라면 그리로는 안 나갈 겁니다."</p>  
<p>'나가는 걸 후회할 만큼 좋은 조건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가?'</p>  
<p>어떤 조건이든 관심이 없었던 진우는 백윤호의 만류를 무시하고 유리문을 휙 열어젖혔다.</p>  
<p>그러자.</p>  
<p>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!</p>  
<p>계단 위를 넘어 올라와 감시과 헌터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트렸다.</p>  
<p>'뭐야, 이건?'</p>  
<p>진우는 눈도 뜨기 힘들 정도로 터져 나오는 불빛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진아는 언제나처럼 3교시를 마친 후 매점에 들러 바나나맛 우유 하나를 사 들고 올라왔다.</p>  
<p>점심까지 아직 1시간 정도 남은 이 시간.</p>  
<p>우유로라도 배를 채워 두지 않으면 허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었다.</p>  
<p>아니나 다를까.</p>  
<p>꼬르륵.</p>  
<p>벌써부터 위장이 연료를 넣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었다.</p>  
<p>진아가 허기진 배를 문지르며 교실로 들어서려는데, 놀란 눈으로 튀어나온 친구 하나가 진아를 불렀다.</p>  
<p>"지, 진아야!"</p>  
<p>"왜, 왜?"</p>  
<p>친구가 놀라니 덩달아 진아도 놀랐다.</p>  
<p>"너희 오빠! 너희 오빠가 TV에 나와!"</p>  
<p>"뭐? 우리 오빠가 왜?"</p>  
<p>진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.</p>  
<p>또 크게 다친 걸까?</p>  
<p>그게 아니면 설마...</p>  
<p>친구는 설명할 시간도 아깝다는 듯 진아의 손목을 잡아끌고 교실로 들어갔다.</p>  
<p>진아의 눈이 칠판 옆, 커다란 TV 쪽으로 향했다.</p>  
<p>그러자.</p>  
<p>"오... 오빠?"</p>  
<p>TV 화면을 본 순간 진아의 손에 들려 있던 바나나 우유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다.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